

메시지 5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성경: 창 1:26, 31-2:2, 마 11:28-30, 출 31:12-17

- I.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 마 11:28-30.
- A. 여기에서 수고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가리킨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 B. 주님은 아버지의 길을 인정하시고 신성한 경륜을 선언하시면서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신 후에(마 11:25-27), 이런 사람들을 그분께로 와 안식하라고 부르셨다.
- C.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가리킨다.
- D.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나 종교의 어떤 의무에 규제받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며, 아버지의 뜻에 제한받는 것이다.
- E.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다(요 4:34, 5:30, 6:38).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다(마 26:39, 42).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1. 믿는 이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인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수고함으로써 그들의 영 안에서 주님을 복사한다 — 마 11:29상, 벰전 2:21.
 2. 평생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신 주님은 그분의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 빌 2:5-11, 히 5:7-9.
 3.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시고, 우리는 많은 하나님-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하나님으로 지극히 만족하신 주님께 배워야 한다.
 4. 하나님은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히 13:20-21).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다(빌 2:13).
- F. 온유하다 혹은 온화하다는 것은 반대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겸허하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모든 반대 가운데서도 온유하셨으며, 모든 배척 가운데서도 마음이 겸허하셨다.
- G.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무엇인가를 얻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안식이 있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만족하셨다.
- H.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움으로써 우리가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만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식이다.
- I. 우리는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에 의해서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운다 — 엡 4:20-21, 벰전 2:21.
- J.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런 멍에는 편하여 결코 괴롭지 않으며, 그런 짐은 가벼워 결코 무겁지 않다.

- K. ‘편하고’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용도에 꼭 알맞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렵고, 엄하고, 날카롭고, 괴롭고’와 대조되는 ‘좋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편하고, 유쾌하고’를 의미한다.
- L. 우리가 주님의 명에(아버지의 뜻)를 메고 그분께 배운다면,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명에는 이와 같다. 즉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누림이다.

II.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관한 긴 기록 이후에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반복해서 말한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안식의 실재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완성과 안식과 평온과 완전한 만족이시다 — 히 4:7-9, 사 30:15장.

- A.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명령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삽입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건축자들 곧 일꾼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어떻게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지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셨음을 가리킨다.
- B.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줄만 알고 주님과 함께 안식할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신성한 원칙에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1.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완성하시고 만족하셨으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으므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정복되도록 그분의 권위가 행사되려는 참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안식하실 수 있다 — 창 1:26, 31-2:2.
 2. 그 후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기념되었다(출 20:8-11). 하나님께 일곱째 날이 사람에게는 첫째 날이었다.
 3. 하나님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사람은 창조된 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
 4. 사람은 먼저 일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비교 마 11:28-30).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막 2:27).
- C. 출애굽기 31장 17절은 “이는 여호와가 육 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1. 안식일은 하나님께 안식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었다.
 2. 하나님은 창조의 일이 완성된 후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 곧 하늘들과 땅과 모든 생물,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시며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 창 1:31.
 3.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 상쾌해지셨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였다 — 창 1:26, 2:7, 비교 요 4:31-34.
 4.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독신’이셨다(비교 창 2:18, 22).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을 표현함으로 그분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셨다(고후 11:2, 엡 5:25). 영원 미래에 하나님은 한 아내, 곧 어린양의 아내라 불리는 새 예루살렘을 얻으실 것이다(계 21:9-10).
 5. 사람은 상쾌하게 하는 음료와 같이 하나님의 목마름을 풀어 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을 그분의 동반자로 얻으셨다.
 6. 하나님께 일곱째 날은 안식과 상쾌함을 얻는 날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반자인 사람에게에는 안식과 상쾌함을 얻는 날이 첫째 날이었다. 즉 사람의 첫째 날은 누림의 날이었다.

- D. 우리가 누림을 갖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신성한 원칙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누림을 갖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린 후에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
1.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갖는 법,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법,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통해 성취하신 것을 누린다.
 2.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그 영으로 채워졌는데, 이것은 그들이 주님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졌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그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포도주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 행 2:4상, 12-13.
 3. 사실상 그들은 하늘에 속한 포도주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졌다. 이러한 누림으로 채워진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오순절은 여덟째 주의 첫째 날이었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과 관련해서 우리는 첫째 날의 원칙을 본다.
 4. 이것은 하나님께는 일하고 안식하는 문제이지만, 사람에게는 안식하고 일하는 문제이다.
- E. 성막을 건축하는 일로 예표된,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반드시 지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가 일하기 위한 힘과 수고하기 위한 에너지가 되실 것이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의 누림과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지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2.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드로는 속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 곧 속을 채워 주시는 영에 의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시를 가졌고, 그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되었다 — 행 2:14.
 3.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표시를 지니고 나서 우리를 채우신 바로 그분과 함께 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들로써 일해야 한다.
 4.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주님이 말씀을 공급하기 위한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시라는 표시를 지니기를 힘써야 한다 — 고후 13:3, 행 6:4.
- F.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또한 영원한 계약 혹은 언약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서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그분과의 하나 안에서 일함으로 그분과 하나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 확신시켜 드리는 것이다 — 출 31:16.
1. 주님을 마시고 먹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누리지 않은 채 우리 스스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비교 고전 12:13, 요 6:57.
 2. 베드로는 오순절 날 말씀을 전할 때에 내적으로 예수님께 참여하면서 그분을 마시고 먹고 있었다.
- G. 안식일은 또한 거룩하게 되는 문제이다(출 31:13). 우리는 주님을 누린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하나 됨으로 일할 때,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된다. 즉 속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육체에 속하고 타고난 모든 것을 대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적셔진다.
- H.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누리지 않고,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은 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봉사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고 몸 안에서의 교통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출 31:14-15).

- I. 하나님의 거처와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를 한 가지, 곧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상쾌하게 되시는 안식일로 이끈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성막 안에 있으며, 성막은 우리를 안식으로, 곧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에 대한 누림으로 이끈다!
- J.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주님의 일을 예표하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을 누림으로 시작해야 하고, 틈틈이 하나님을 누려서 상쾌해짐으로 건축하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내적인 안식이신 그리스도로 안식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